

Issue

1. 아이디어 보자마자 오! 해야함

- 학부생 수준에서 구현 정도는 비슷하기 때문에
- 아이디어 제안 발표 했을때 이미 결정남.
- 우리가 오 할 정도여도 교수님들은 시큰둥한 게 많음.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2~3개는 필요함.
- 재밌네 하는 아이디어 한개만 건지면 됨.

2. 아이디어라 함은 구체적인 코어 기능(구체적인 서비스)을 포함

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했어. 근데 그러면 그 분석한 걸로 뭐할건데?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할 건지.

3. 구체적인 원시 데이터 확보에 대한 이슈

취준생들 데이터를 받아서 관련 정보를 주고 오그래? 사용자 분석을 공공 데이터 뭐 가져다가 분석을 했다치자 그럼 기업은? 데이터 어떻게 가져올거야? 구체적 데이터 없잖아! 그래서 분석을 했어 근데 그럼 뭐할건데 하고 싶은게 뭔데

아이디어 결정 트리

1. 와 소리가 나오는 아이디어인가(비현실 적인 내용)

교수님의 이목을 끌만한, 그니까

-> 어 그래? 이게 되나? 그런게 있나? (한번 생각해봄) 어... 근데 생각해보니까 될 것도 같아! (한번 알아봄)야 잘 뭐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아 한번 해보자!

라고 나올 정도. 학부생이 현실적이라 생각하면 사실 이미 식상한 거임.

예시) 나는 악기를 못다뤄 근데 전공생처럼 쉽게 다루고싶어 어떤 좋은거 없을까? 요렇게 시작해야 함.

2. (Optional) 이미 있는 아이디어인가 => 아이디어 파생

3. 코어 기능이 만족스러운가

4. (Optional)데이터 이용한다면 원시 데이터 또는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를 충분한 확보할 수 있는가.

- raw data는 open db (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발표) 나 Google 등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에서 수집

이 때 코어 기능이란?

-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결과물을 받는가. 가장 추상화된 단계만 말하면 됨.
- ex)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합격 확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기업 리스트를 받는다.

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용자가 받는 서비스가 뭔데?

터치를 하면 뭐가 되는데 (터치를 입력받고 사용자를 파악하고 ...어쩌고 이거 필요없이) 열린다

구현 난이도? 구현 가능성? 생각하지만. 교수님이 알아서 알아보시고, 아이디어만 괜찮으면 그 후에 현실과 타협하면 돼.